

방사선 치료 관련 정보에 대한 환자의 이해정도 및 교육요구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강수만 · 이철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치료관련정보에 대한 사전교육, 이해정도 및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4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 있는 치료 방사선과를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는 194명의 암 환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전산처리하고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항목별 평균평점을 산출하였으며 크기 순으로 이해도와 교육요구도에 우선순위를 배정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방사선치료 기초조사에 따른 이해 및 교육요구도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방사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정도는 2.22~3.53(5점 만점) 사이로 평균평점 2.67±0.59이며 전반적으로 보통이하의 이해수준을 갖고 있으며 실제 치료와 관련된 이해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을 보면 교육정도, 인터넷 사용유무, 입원유무, 월 총수입별 특성 등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다른 특성들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3. 방사선 치료환자의 교육요구도는 평균평점 3.91~4.34(5점 만점)의 분포로 평균평점 4.19±0.4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평점을 나타내 이해정도가 낮은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교육요구도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요구도는 연령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은 30대가 70대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교육정도, 인터넷 사용유무, 치료일수별, 총 조사선량, 입원유무, 거주지별 구분 등에서도 교육합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5. 방사선치료 환자의 이해정도와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는 이해정도가 낮을 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의 이해정도와 교육요구도는 교육수준, 연령, 치료부위, 증상경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정도는 부족하며, 이에 반해 교육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여건상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환자들의 평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핵심용어: 암환자, 이해정도, 교육요구도, 방사선 치료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외과적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등이 있는데 특히 방사선치료는 최근에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방사선요법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수술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사용하는 요법으로 암 치료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60% 정도가 방사선요법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¹⁾

방사선요법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오심, 구토, 식욕부진, 피부염, 빈혈, 탈모, 구강 내 염증, 설사, 피로 등의 부작용이 있다.^{5,10)} 따라서 새로 진단 받은 암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환자들이 느끼는 질병에 대한 개개인의 특성과 치료에 대한 반응, 그리고 부작용과 불편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치료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스스로 자가 간호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¹⁾ 방사선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들은 다양한 부작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암의 진단과 치료방법이 발달하고, 진단받고 생존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암 질환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암 진단과 치료과정에

이 논문은 2006년 6월 1일 접수하여 2006년 8월 1일 채택되었음.
책임저자 : 강수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방사선종양학과
Tel: 051)990-6398, Fax: 051)990-3993
E-mail: am7575@yahoo.co.kr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획적인 정보를 받기를 원 한다.^{8,9)}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주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11,12)} 즉, 환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 환자의 흥미와 교육적 요구 및 이해의 수준이 고려되어^{8,9)} 스스로 실제 질병에 대처하고 문제해결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치료방사선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접촉을 하므로 각 개인이 알고자 하는 요구에 대해서 교육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암 환자들은 그들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환자의 이해 정도가 낮으며^{9,13,14)} 암 환자의 암에 대한 교육 요구도는 높았다.¹²⁾ 또한 환자나 가족원에 대한 교육수행 정도는 낮으며^{2,8)} 가족이 지각한 간호사 교육수행 정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그러나 지금까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정보적 요구가 무엇이며 이들 정보가 환자에게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조사한 연구는 김 등¹⁾과 남²⁾이 있으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이해정보 및 교육요구도에 대해 조사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치료관련정보에 대한 태도, 궁금증, 증상경험, 이해 정도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치료 및 교육시스템에 접근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방사선치료관련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치료관련정보에 대한 환자의 사전교육, 이해 정도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환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 1)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여부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교육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알아본다.
- 3) 방사선치료를 받는 대상자자들의 궁금증 및 치료 시 나타나는 경험 증상을 알아본다.
- 4)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본다.
- 5) 방사선치료에 대한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도를 알아본다.

6)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해,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최근 1개월 동안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교 병원과 1개의 종합병원 방사선종양학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성인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자들이 임상에서 근무하면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작성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 동료 치료방사선사들의 직접적인 조언을 토대로 각 병원별로 예비 실험을 2회 실시 하였으며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방사선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연령, 성별, 결혼유무, 종교, 교육 정도,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과 치료형태, 치료부위별, 치료일수, 방사선 총 조사선량 등 치료학적 특성에 대한 항목으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2) 사전 교육현황조사

방사선 치료 전 의료진으로부터의 사전교육현황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하여 8문항과 방사선 치료 시 궁금증에 대한 질문으로 총 14항목과, 방사선치료 시 증상경험으로 2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식사에 대한 기초교육 및 만족에 대한 7문항으로 제작하였다.

3) 이해

대상자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문헌 고찰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이며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곳의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본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치료에 이용되는 방사선이 무엇인지와 장비, 치료 시 통증, 치료의 부작용, 치료방법, 합병증 등으로 되어 있으며 정답은 “매우 잘 안다.”를 5점, “잘 안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모른다”를 2점, “전혀 모른다”를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9477$ 이었다.

4) 교육 요구도

본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부작용에 대한 교육, 치료의 효과, 합병증에 대한 교육,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 암의 진행여

부,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 부부간 성생활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정답은 “매우 필요하다”를 5점, “필요하다”를 4점, “보통이다”를 3점, “필요치 않다”를 2점, “전혀 필요치 않다”를 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해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9506$ 이었다.

3. 자료수집 및 절차

2003년 3월 25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작성된 설문지를 D대학 병원과 K대학 병원에 각각 5부씩 배포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재차 치료방사선사에게 의뢰하여 보완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2003년 4월 1일~2003년 4월30일까지 4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 방사선선종양학과에서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직접 배포 하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전화 설문으로 최종 처리하였다. 병원별 50부씩 총 25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부수는 205부(82%)였으며, 이 중 성실히 질문에 응답한 194명(유효응답률 77%)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각 항목별로 실수와 백분율,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평균평점의 크기순으로 이해 정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방사선치료 기초조사에 따른 이해 및 교육요구도간의 차이는 빈도분석, t-test, ANOVA 와 Scheffe 사후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확률은 0.05로 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분포도를 보면 연령은 40대가 50명(25.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45명(23.2%), 60대가 42명(21.6%)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자가 73명(37.6%), 여자가 121명(62.4%)이었다. 결혼 상태는 유배우가 155명(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불교 111명(57.2%), 기독교 23명(11.9%), 천주교 17명(8.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고등 졸업 69명(35.6%), 중등 졸업 44명(22.7), 대졸이상 38명(19.6%)이며 인터넷 사용유

무에 답한 사람은 “할 수 있다” 78명(40.2%), “할 수 없다” 116명(59.8%)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92명(47.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별은 광역시, 시 단위 164명(84.5%)으로 읍, 면 단위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생활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75명(38.9%), 100~200만원이 58명(30.1%)이며 의료 보장의 종류로는 국민건강보험이 116명(59.8%)으로 국민건강보험+민간 암 보험 51명(26.3%)보다 높게 나타났다.

2. 방사선 치료학적 특성

방사선 치료방법에 대해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치료 병행요법이 68명(35.1%), 그 다음이 항암요법, 방사선요법이 58명(29.9%)이며 방사선 치료 단독이 39명(20.1%), 수술, 방사선요법 28명(14.4%), 기타 1명(0.5%)으로 나타났다. 치료 부위별로는 흉부 93명(47.9%), 골반 34명(17.5%), 복부 32명(16.5%), 두정부 24명(12.4%), 기타 11명(5.7%)으로 나타났다. 치료일수별로는 20~30일이 67명(3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일 이하가 53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30~39일이 48명순이었다. 방사선 총 조사선량별로는 3000 rad이하가 71명(36.6%)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에 대한 사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방사선 치료 전 의료진으로부터 방사선치료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총 대상자 194명중 72명(37.1%)이 “받았다”로 답했으며 117명(60.3%)이 “받지 못했다”로 답해 사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받았다.”라고 답한 72명에 대해 사전교육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매우 만족” 7명(9.7%), “만족” 5명(6.9%), “보통” 7명(9.7%), “불만족” 31명(43.1%), “매우 불만족” 22명(30.6%)으로 나타나 사전 교육을 받은 군에서도 교육이 미흡함을 나타내었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급성, 만성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교육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총 대상자 194명중 “받았다” 51명(26.3%), “받지 못했다” 136명(70.1%), “모르겠다” 7명(3.6%)으로 나타나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교육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치료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총 대상자 194명중 “완치 효과가 있다” 74명(38.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병의 진행만 막아준다” 47명(24.2%), “완치는 불가능하다” 26명(13.4%), “잘 모르겠다” 47명(24.2%)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하는 설문에서는 가족, 친지, 친구가 100명(51.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의사 45명(23.2%), 치료사 41명(21.1%), 종교인 3명(1.5%), 사회단체 2명(1.0%), 기타 3명(1.5%)으로 나타나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진이나 전문 상담원으로부터의 치료 종료 후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받은 적이 있다” 26명(13.4%), “받은 적이 없다” 159명(82.0%)이며 “모르겠다” 9명(4.6%)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역시 전무한 상태였다.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군 26명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내용을 묻는 설문에서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이 17명(65.4%)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및 대처방안”이 4명(15.4%), “삶의 질”이 3명(11.5%), “성 생활에 대한 교육” 2명(7.7%)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 “매우 필요하다”가 134명(69.1%), “약간 필요하다”가 52명(26.8%)이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가 2명(1.0%), “필요하지 않다”가 1명(0.5%), “잘 모르겠다”가 5명(2.6%)으로 나타나 환자들이 느끼는 교육요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 전(前) 전문의 또는 영양사 및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묻는 설문에서 “받았다”가 27명(13.9%), “받지 못했다”가 164명(84.5%), “모르겠다”가 3명(1.5%)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고난 후 식사를 잘 하느냐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99명(51.0%), “잘 못하고 있다”가 86명(44.3%), “전혀 못한다”가 9명(4.6%)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군에서 식사를 못하는 원인을 묻는 설문에서 “치료부위의 통증(오심, 구토 등)”이 41명(43.2%), “치료부위와 관계없이 식욕저하”가 33명(34.7%), “병원 식사의 질 저하”가 7명(7.4%), “체력 저하로 인한 소화기 부담”이 10명(10.5%), 기타가 4명(4.2%)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못하는 경우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와 상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상의 한다”가 67명(70.5%), “안 한다”가 26명(27.4%), “모르겠다”가 2명(2.1%)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및 치료방사선사와의 상의를 했을 경우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가 4명(6.0%), “만족한다”가 8명(11.9%), “보통이다”가 34명(50.7%), “불만족”이 17명(25.4%), “매우 불만족”이 4명(6.0%)으로 나타났다. 치료부위별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를 아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안다”가 6명(3.1%), “잘 안다”가 22명(11.3%), “보통이다” 51명(26.3%), “모른다”가 97명(50.0%), “전혀 모른다”가 18명(9.3%)으로 나타났다. 병원 식사의 질이 식성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의 설문에서는 “대충 먹는다”가 115명(59.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집에서 별도의 요리”가 60명(30.9%), “건강보조식품에 의존 한다” 4명(2.1%), “병원 주사제에 의존한다” 2명(1.0%), 기타가 13명(6.7%)으로 나타났다.

3. 방사선 치료에 대한 궁금증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은 방사선에 대한 치료의 시작에서부터 방사선이란 생소한 단어에서 주눅이 들기 시작하여 치료의 순서, 방법, 효과 등의 무수한 궁금증에서부터 방사선종양학과 외래를 접하게 된다.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194명의 실험군을 통한 방사선치료 시 궁금증을 묻는 설문에서 가장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은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173명(89.2%)이며 그 다음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161명(83.0%), “수분, 영양 섭취관리” 133명(68.5%), “방사선 치료방법” 89명(45.8%), “통증관리” 74명(38.1%) 등의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관리 28명(14.4%), 모발관리 20명(10.3%)이며 구강관리 14명(7.2%), 기타 10명(5.1%)으로 기타는 치료비에 대해 3명, 치료시간에 대해 4명, 치료실내에 대한 궁금증 1명으로 나타났다.

4. 방사선 치료에 대한 증상경험

방사선치료로 인한 증상경험을 살펴보면 피로감이 “있다”가 146명(75.3%), “없다”가 48명(2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식욕감퇴가 “있다” 137명(70.6%), “없다” 57명(29.4%)이며 오심, 구토가 “있다” 106명(54.6%), “없다” 88명(45.4%)이었으며 설사가 “있다” 80명(41.2%), “없다” 114명(58.8%)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식도염, 현기증, 체중감소, 통증, 소화불량, 피부변화, 변비,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탈모, 구강건조, 피부색 변색, 미각병화, 구내염, 혈변, 식도 협착, 연하곤란, 출혈, 무모증, 기타 3명(1.5%)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5. 방사선 치료 관련 정보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정도

방사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 정도는 2.22~3.53사이로 평균 2.66이며 보통이하의 이해수준을 갖고 있으며 환자의 이해 정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현재의 병명”이 3.53±0.93으로 가장 높았으며 “방사선 치료 시 준비물”이 3.09로 그 다음 순이었으며 “방사선치료는 어떤 환자에게 치료하는지”가 3.09±0.90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치료에 소요되는 시간, 치료 기간 중 술, 담배 등의 기호식품섭취, 방사선 치료 시 통증, 치료기간 중 주의할 점, 방사선으로 어떻게 병이 치료되는지, 치료기간 중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치료기간 중 적당한 운동, 항암제 치료와 같이 받아도 되는지, 방사선치료 부위에 대한 부작용, 방사선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해 정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치료 장비”가 평균평점 2.22±0.73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부작용에 대한 대처요령” 2.25±0.76으로 나타났고,

치료 중 또는 치료종료 후에 치료로 인한 합병증, 방사선 치료 후 치료 부위관리 등이 낮게 나타났다.

6. 방사선 치료 관련 정보에 대한 대상자의 교육요구도

방사선 치료관련 정보에 대한 환자의 교육요구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도는 3.91~4.34의 분포로 평균평점 4.19±0.4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평점을 나타내 이해 정도가 낮은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교육요구도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우선순위로 살펴보면 “음식의 섭취량, 식이요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평균평점 4.34±0.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치료로 인한 이차적 감염과 합병증에 대한 교육 (4.33±0.59)”, “병의 진행여부와 병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 (4.31±0.63)”, “제한 음식의 종류와 그 이유에 대한 교육 (4.31±0.61)”, “병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법 교육 (4.29±0.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평점이 낮은 항목으로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사전 교육 (3.77±0.92)”, “성 생활의 시기와 주의사항 및 성에 대한 교육 (3.91±0.92)”, “병원 치료외의 대체요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4.08±0.67)”, “처방약, 연고사용 및 복용방법에 대한 교육 (4.10±0.62)”, “불안, 두려움에 관한 심리적 요법에 대한 교육 (4.10±0.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도는 현재 받고 있는 실질적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들이 사후 대처방안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의 궁금증 및 증상경험과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이해 및 교육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환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방사선치료에 대한 사전 교육현황에서 총 대상자 194명 중 72명(37.1%)이 “교육을 받았다”로 답했으며 117명(60.3%)이 “받지 못했다”로 답해 사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134명(69.1%), “약간 필요하다” 52명(26.8%)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이 느끼는 교육요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 시 궁금증을 묻는 복수 응답 설문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173명(89.2%)으로 가장 많고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161명(83.0%), “수분, 영양 섭취관리” 133명

(68.5%), “방사선 치료방법” 89명(45.8%), 통증관리 74명(38.1%)으로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로 인한 증상경험을 살펴보면 피로감이 “있다”가 146명(75.3%), “없다”가 48명(2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식욕감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증상경험은 연령별, 성별, 인터넷 사용유무, 총수입별, 치료형태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결혼 상태, 종교, 교육 정도, 직업, 거주지, 의료보장, 치료부위, 치료일수, 입원유무, 총 조사선량별 비교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났다.

방사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 정도는 2.22~3.53 사이로 평균 2.66이며 전반적으로 보통이하의 이해수준을 갖고 있으며 환자의 이해 정도가 높은 항목은 “현재의 병명 (3.53±0.93)”, “방사선 치료 시 준비물”, “방사선치료는 어떤 환자에게 치료하는지”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치료 장비” (2.22±0.73), “부작용에 대한 대처요령” (2.25±0.76), “치료 중 또는 치료종료 후에 치료로 인한 합병증”, “방사선 치료 후 치료 부위관리” 등은 낮은 평점을 나타내 실제 치료와 관련해 꼭 알아야만 할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치료관련 정보에 대한 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해 정도는 2.22~3.53의 분포로 평균평점 2.67±0.59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이해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 치료관련 정보에 대한 환자의 교육요구도는 3.91~4.34의 분포로 평균평점 4.19±0.45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평점을 나타내 이해 정도가 낮은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교육요구도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자들의 교육요구도가 현재 받고 있는 실질적 치료와 관련된 궁금증들이 사후 대처방안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의 이해 정도와 교육요구도는 교육수준, 연령, 치료부위, 증상경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 정도는 부족하며, 이에 반해 교육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여건상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환자들의 평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알고자 하는 의문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다한다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나은 환자 만족과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1. 김조자, 박지원, 윤정순, 김옥녀, 권연순, 이희순: 암환자 교육 요구에 대한 환자, 간호사, 의사의 지각 비교 연구. 대한간호 1989;28:53-66
2. 남혜숙: 항암요법 환자의 교육요구도와 간호사의 교육수행 정도. 경북대 석사논문, 1989
3. 유경희, 이선주, 강창희, 이은옥: 입원한 암환자의 교육적 간호요구. 성인간호학회지 1993;5:86-93
4. 전시자, 김강미자, 박정숙 이미화, 조경순: 성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1996
5. 한혜라, 홍경자: 암환자 부모의 교육 요구 및 부모가 지각한 간호사의 교육수행 정도. 간호학 논문집 1996;10:189-201
6. 박소연: 환자교육이 암환자의 방사선 요법에 관한 이해와 자가간호 수행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7. Campbell-Forsyth L: Patients perceived knowledge and learning needs concerning radiation therapy. Cancer Nursing
8. Grahn G, Johnson J: Learning to cope and living with cancer: learning-needs assessment in cancer patient education. Scand J Caring Sci 1990;4:173-181
9. Jones W, Rimer B, Levy M, Kinman J: Cancer patients' knowledge, belief and behavior regarding pain control regimens: implications for education programs, patient. Edus Couns 1984;5:159-164
10. Johnson J, Flaherty M: The nurse and cancer patient education. Seminars in Oncology 1980;7:63-70
11. Karini D, Woltshaw E: How well informed? Cancer Nursing 1986;9:238-242
12. Lauer P, Murphy S, Power M: Learning needs of cancer patients: a comparison of nurse and patient perception. Nursing Reaearch 1982;30:11-16
13. Muss B, White D, Michielutte R, Richards F, Cooper M: Written informed consent inpatients with breast cancer. Cancer 1979;43:1549-1556
14. Pennman D, Holland J, Bahna G: Informed consent for investigational chemotherapy: patient's and physician's perceptions. J Clin Oncol 1984;2:849-855
15. Rimer B, Keinz M, Glassman B: Cancer patient education: reality & potential. Preventive Med 1985;14:801-808

Abstract

Level of Understanding and Requirement of Education of Patients on Radiotherapy

Soo Man Kang, Choul Soo Lee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Kosin University Cancer Center, Busa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reliminary education, level of understanding and the degrees of educational requirement for cancer patients on radiotherapy and to present the preliminary data to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practical patients treatment program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of this study, Relationship between degrees of knowledge and demand for educational requirement for patients who are undertaking radiotherapy could be varied with different factor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ages, regions of treatment, experience of symptoms. In general, patients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have very high demand for educational requirement. Customized education patients by patients would not be possible in reality. However, if we could provide standard for patients and establish systematic sessions during treatment based on this study, more and better patients satisfaction and results of treatments could be achieved.

Key words: patients, level of understanding, educational requirement, radiotherapy